

2019년 1월 1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기중 과장(044-201-2551), 황성철 사무관(2555) / 제공일: 1월 9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AI 발생 위험이 높은 1월, 특별방역 강화대책 추진

- 농식품부 중앙기동점검반, 9개 도(道)와 방역취약대상 일제점검 -

〈 주요 내용 〉

◆ 매년 1~2월은 철새 유입이 증가하는 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AI 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예찰을 확대하고 농식품부 주관 방역 취약지역 일제점검 등 특별방역 강화 추진

- * 국내 도래한 겨울철새가 작년 동기보다 22% 증가(108→132만 마리)
- * 야생조류에서 H5·H7형 AI항원 검출은 9% 증가(42건→46건)

◆ (야생조류 예찰) 철새 유입 증가에 따라 야생조류 AI 예찰·검사 물량을 당초 계획 대비 **163%로 확대**(1~2월, 5,342건→ 8,708)

○ 야생조류에서 H5·H7형 AI 바이러스 검출 즉시 인근 지역 방역 강화

- * 검출지점 반경 10Km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·예찰 강화,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7일 간 소독 강화 유지

◆ (가금농가 특별점검) 철새가 다수 도래한 지역(9개 도(道))과 방역취약대상(877개소*) 일제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 등 AI 예방 활동에 집중

- * 전국 오리농가(539호), 최근 입식농가(51호), 산란계 밀집사육단지(11개소), 가금농가 왕겨공급업체(174개소), 백신접종팀(102개)

○ 농식품부 중앙기동점검반이 직접 방역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소독 미실시 등 법령 위반사항은 행정처분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개호, 이하 농식품부)는 겨울철새가 작년보다 22% 증가*하였고,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**되고 있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AI 예방을 위해 1월 AI 특별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.

* 국내 도래한 겨울철새가 작년 동기보다 22% 증가(108→132만 마리)

** '18.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H5·H7형 AI항원 46건 검출 (작년 동기 42건 대비 9% 증가)

□ (야생조류 예찰) 철새 유입 증가에 따라 1~2월 야생조류 AI 예찰·검사 물량을 당초 계획 대비 163%로 확대(5,342건→8,708)한다.

○ 야생조류에서 H5형 또는 H7형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, 인근 지역(검출지점 반경 10Km)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, 예찰을 강화하고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7일 간 소독 강화를 유지하는 등 사전 예방적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한다.

□ (가금농가 특별점검) 농식품부 주관 중앙점검반을 가동하여 다수의 철새가 도래한 지역(9개 도*(道))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방역 추진 상황, 산란계 밀집사육단지(11개소)와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등 방역 실태를 직접 점검한다.

*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

○ 특히, AI 취약 축종*인 오리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오리농가 전체(539호, 종오리 96호·육용오리 443호)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,

* 오리는 그간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축종('14년 이후 발생한 고병원성 AI 총 834건 중 462건, 55%)이며, AI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전파가 우려되는 방역 취약축종임

- AI 위험시기(10월 이후)에 가금을 입식한 농가(51호), 가금농가에 왕겨를 공급하는 업체(174개소)와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백신 접종팀(102개) 등 방역 취약대상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한다.
-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방역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될 때까지 반복 확인토록 조치할 예정이다.
- (당부사항) 농식품부는 추워진 날씨로 소독시설이 동파되거나 소독약이 어는 등 차단방역이 소홀해 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,
 -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매일 소독시설과 물품을 꼼꼼히 점검하고, 노후된 축사 정비와 소독시설 난방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 - 아울러, 각 지자체에서는 관내 축산시설에 대하여 방역 지도·홍보를 강화하고, 겨울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